

正易思想의 根本問題와 先後天變化原理에 관한 고찰

남 명 진

(충남대학교)

〈요 약〉

易은 變化의 原理를 담고 있는 사상이다. 또한 孔子는 十翼의 저술을 통해 天道의 變化原理인 易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孔子이후 漢·唐代의 經學과 宋代의 性理學 등에서는 周易이 가진 본래의 의미인 曆數聖統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象數 혹은 義理的인 해석을 가하거나 周易의 일부분만을 취하여 성리학적 우주론의 근거로 삼았다.

孔子 이후의 이러한 易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넘어서서 周易이 의미하는 바 天道變化의 原理가 곧 曆數聖統의 원리이며 이는 河圖·洛書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밝히고 있는 것이 조선말의 유학자인 一夫 金桓이 저술한 「正易」이다. 「正易」에서는 易이 나타내 고자 하는 바가 十五聖統의 원리와 先·後天의 四易變化를 통해 大亨以正, 즉 正의 세계가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正易」이 제시한 易學의 三大命題를 중심으로 하여 河圖·洛書原理인 天道의 曆數變化原理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한 十五尊空·四曆變化의 원리로써 十五聖統이 전개되고 四聖之養가 진행됨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先後天變化原理의 근거인 數數原理를 인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실천하는 人道의 中正·性命의; 이치를 밝혀 天人合一 즉, 聖人·君子合德의 길을 명시한 「正易」의 근본사상을 근원적으로 고찰하였다.

I. 풀음말

正易思想은 이미 學界에 다소 알려져 있듯이 朝鮮朝末 우리나라 儒學者인 一夫 金桓선생(1826-1898)이 著述한 「正易」의 思想內容을 말하는 것으로서 易學의 根本原理를 學的 論理體系로 밝힌 것이므로 單純히 19世紀 後半에 簇生한 다른 韓國 新興宗教思想과는 다른 思想이다.¹⁾ 만일 易의 根本問題를 깨닫지 못한 채로

1) 一夫 金桓이 쓴 「正易」의 사상내용을 철학적으로 밝혀 논명하여 놓은 학자는 柳南相교수로

正易을 보거나 正易이 담고있는 基本 命題를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한 채로 易學을 본다면 易道의 本質이 曲解되거나 이 兩者를 전혀 無關한 별개로 誤解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正易」은 伏羲氏가 처음 八卦를 그은 이래 先秦 聖統을 따라 孔子의 十翼으로 完成된 先秦聖學의 哲學的 根據를 제공한 「周易」中心의 易學思想을 徹底히 계승한 것이기 때문이며, 「周易」이 直說的으로 提示하지 않고 象徵的으로 隱微하게 秘藏해 놓은 根本奧義를 「正易」이 도리어 확실히 밝혀내 놓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周易」과 「正易」과의 關係는 論理的으로 內·外, 表·裏, 先·后의 關係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漢代以後 易學의 研究成果를 選擇的으로 受容하여 特히 宋代易學의 兩大 特徵인 邵康節의 先後天易學理論과 朱子·蔡元定의 圖書易學理論을 일단 肯定하면서도 漢·宋代의 易 學이 생각한 次元을 디디고 넘어서서 易學의 新境地를 開示하여 先秦儒敎思想의 本來面目을 드러낸 것이 「正易」인 것이다.²⁾

따라서 「正易」이 提示한 命題는 漢代以後 儒學이 開拓한 經學과 性理學의 世界를 싸고 넘어서서 先秦聖學의 核心問題인 天命思想으로 還元하여, 그 眞面目인 宗教的 眞理를 易學的 立場에서 再闡明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正易」이 提示한 易學의 基本문제들 그 序文格인 「大易序」 첫 머리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聖스럽도다 易의 易됨이여. 易은 曆이니 曆이 아니면 聖人이 없고 聖人이 없으면 易理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原初의 易과 未來의 易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³⁾

이는 대체로 三大命題에 依하여 易의 根本原理가 解明되어짐을 의미한 것이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易은 曆이다(易者는 曆也라)」는 명제로서 易의 本質을 새롭게 규정지은

서 이 글의 끝간은 그의 논조를 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2) 柳南相, 「金恒의 正易思想」, 『韓國近代宗教思想史』(崇山朴吉眞博士古稀紀念, 이리: 圓光大學 校出版局, 1984.10) 971쪽.

3) 「聖哉 易之爲易 易者曆也 無曆無聖 無聖無易 是故初初之易 來來之易 所以作也」(金恒; 正易 大易序)

것이다. 卦爻의 象을 중심으로 易理를 설명하는 『周易』이 提示한 「易者는 象也라」는 命題와는 입장을 달리하여 이와 같이 새로운 命題를 提示함으로써 易의 變化之道의 근거인 天之曆數原理를 직접 提起한 것이다. 이 점은 특별히 留意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는 「曆이 아니면 聖人也 없다(無曆이면 無聖이라)」는 命題로서 曆數聖統原理의 問題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는 바로 天之曆數原理에 根據하여 天命을 받은 聖인이 人類歷史 속에 誕生함으로써, 聖統이 展開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聖인이 없으면 易도 없다(無聖이면 無易이라)」는 命題로서 「聖學은 곧 易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놓은 것이다. 이는 바로 聖인의 道統淵源을 쫓아서 易學이 生成되고 易道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正易』은 이러한 易의 三大命題를 解明하면서 동시에, 易學의 本質問題인 變化之道로서의 天之曆數變化原理가 闡明되어짐으로써, 先後天變化原理를 내용으로 하는 易道の 根源을 완전히 밝혀 놓았다. 따라서 初初之易인 原易原理와 더불어 來來之易 즉 未來易으로서의 『正易』이 쓰여지게 되는 필연성도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에 「易者는 曆也라」는 새로운 命題에 依하여 強調되어진 天之曆數原理의 問題는 易學의 核心的 基本命題로서, 儒敎 天命思想의 本質的인 內容을 體系的으로 理解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儒敎의 本來面目을 再闡明할 수 있는 關鍵이 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以上에서 提示한 命題들을 하나 하나 簡略하게 풀어나가면서 正易思想의 易學的 體系的 大體를 설명하고, 正易의 先後天變化原理의 本質的 內容도 밝혀 보기로 한다.

II. 天之曆數原理

儒敎經典중에 天之曆數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書經』大禹謨篇⁴⁾과 『論語』堯曰篇이다. 그런데 後者는 前者의 기록에서 가장 핵심적

4) 書經 大禹謨篇에는 다음 세문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帝曰來 禹 降水儆予 成允成功 惟汝賢 克勤于邦 克儉于家 不自滿假 惟汝賢 汝惟不矜 天下莫與汝爭能 汝惟不伐 天下莫與汝爭功 予懋乃德 嘉乃丕績 天之曆數在汝躬 汝終陟元后.(第一文段)

인 부분만을 뽑아 儒敎思想을 지극히 簡單明瞭하게 표현하고 있다.

堯임금이 말하기를 그대 舜아 天의 曆數가 네몸에 있으니 민쁘게 그 中을 잡으라
四海가 困窮하면 天祿이 영원히 끝나리라.⁵⁾

이를 분석하여 살펴 보면 다음 세가지로 정리된다.

(1) 「天之曆數가 그대의 몸에 있다」 고 한 것은 하늘로부터 聖人에게 주어진 ‘天命’을 뜻한 것이니, 天之曆數란 곧 曆數 構成의 근본原理를 말한 것으로서 天命의 形而上學的 근거로서의 ‘天道’를 이룬다.

(2) 「允執厥中」이라고 한 것은 바로 聖人에게 주어진 天命이 內面化되어 主體的으로 自得되어진 ‘人間本性’을 말함이다.

(3) 「四海가 困窮하면 天祿이 영원히 끝나리라」 고 경계한 것은 政治의 입장에서 天命을 말한 것으로서, 만약에 天下를 잘못 다스리면 天命이 끊어져서 現實의 지위인 天祿도 상실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인용문의 뜻은 天命의 形而上學的 根據로서의 天道인 「天之曆數」原理와, 그리고 天道의 主體的 自覺에 의한 「執中」과 또한 天命 遂行의 現實의 德位인 「天祿」의 三大問題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儒敎思想의 根本課題도 이 三大問題의 범위를 벗어나 나갈 수 없는 것이며, 이들 문제는 다시 ‘天命思想’ 하나로 일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先秦聖學이 天之曆數를 주요과제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命의 근원이 天에 있다면 天의 구체적 내용은 天道로서의 曆數原理인 것이다. 따라서 天地曆數原理의 主體的 自覺은 곧 天命의 自覺이 되는 것이다.⁶⁾

그런데 漢代以後의 학자들은 이 天之曆數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이를 天命의 근원적 진리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唐虞시대에 있어 왕위를 계승하는 舜·禹 개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第二文段)

無稽之言弗聽 勿詢之謨勿庸 可愛非君 可畏非民 衆非元后 何戴 后非衆 罔與守邦 欽哉 慎乃有位 敬修其可順 四海困窮 天祿永終」.(第三文段)

5) 「堯曰咨爾舜아 天之曆數在爾躬이니 允執厥中하라 四海困窮하면 天祿이 永終하리라」(論語, 堯曰二十)

6) 앞의 주 2)와 같은 글, 973쪽.

인의 運數 또는 王位 繼承의 順序나 차례로 이해하는 동시에 天之曆數를 四時變化의 법칙정도로만 보았던 것이다.⁷⁾

이에 비하여 正易은 天之曆數에 관하여 漢代 諸儒의 견해를 포괄 초극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全體曆數의 성립과 曆數自體의 變化를 가능케 하는 所以然의 根本原理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先秦儒敎의 易學的 本質糾明을 통하여 그 宗教的 本來性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聖學의 중심과제인 天之曆數原理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周易 繫辭에 나타난 河圖·洛書原理인 것이다.⁸⁾

대체로 河圖와 洛書에 관하여서도 漢代易學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學의 개

7) 天之曆數에 관한 漢·唐儒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曆數謂天道…舜禹有治水之大功 言天道在汝身 汝終當升爲天子」(孔安國, 『尚書孔氏傳』, 大禹謨, 天之曆數의 註) 「天之歷運之數 帝位當在汝身 汝終升此大君之位 宜代我爲天子」(孔穎達, 『尚書正義』, 大禹謨, 天之曆數의 正義) 「曆數謂列次也」(何晏, 『論語集解』 堯曰篇 天之曆數의 註) 「堯曰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者 此下是堯命舜以天命之辭也……曆數謂列次也……言天位之列次 當在汝身 故 我今命授於汝也……孔注尚書云謂天道 謂天曆運之數 帝王易姓而與 故 言曆數謂天道 鄭玄而在汝身 謂有圖錄之名 何(晏) 云列次 義得兩通」(郭昺, 『論語正義』 堯曰篇 天之曆數의 正義) 등이라고 하여, 曆數와 天命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曆數는 王位繼承의 順序로, 天命은 다만 天子의 職位로 해석하였고, 더 나가서는 孔安國·孔穎達의 「天地歷運說」과 鄭玄의 「圖讖運數說」까지 인용하면서 自說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던 것이다.

漢唐儒의 이와 같은 견해는 宋儒에도 그대로 傳承되었던 것이다. 즉 「曆數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也. 帝王相承 其次第之數 若曆之歲月日時亦有先後之序 然聖人所以知其序之屬於此人 亦以其人之德 知之 非若讖緯之說 姓名見於圖錄而爲言也」(『論語集註』, 堯曰篇 天之曆數에 관한 朱子の 註)라 하여 曆數를 天位相承의 순서로 보는 何晏·郭昺의 견해와 一致하는 해석을 하였던 것이다. 또 「曆數者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 汝有盛德大功 故知曆數 當歸於汝 汝終當升此大君子之位 不可辭也」(蔡沈, 書經集傳, 大禹謨, 天之曆數의 註)로 전승되었다. 이처럼 天之曆數를 단순히 自然科學的·天文學的 차원에서 四時變化의 법칙에 의한 冊曆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聖人의 王位相承의 次第와 冊曆의 歲時氣節의 先後的 질서를 대비하는 뜻으로 이해하였을 뿐, 天之曆數原理가 바로 聖人이 天命을 받는 직접적 根源으로서의 哲學的 내지 宗教的 眞理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天之曆數原理와 聖人의 역사적 사명 즉 天命을 완전히 分離시켜 二元的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8)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周易 繫辭上 11章)라고한 神物로서의 河圖洛書原理와 그 根本으로서의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周易 繫辭上 9章)天地之數의 基本的인 構成法則을 말하고 있음에 根據하여 推論함

념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易緯說에 의한 象數學으로 연구되었고 宋代에 와서는 朱子와 蔡元定에 의하여 河圖十數(뒤 圖1 참조)·洛書九數(뒤 圖2 참조)說로 낙착되면서 現傳의 圖象으로 확정되는 동시에 圖書象數易學이 성립되었지만, 역시 河圖洛書의 분명한 정의는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⁹⁾

그런데 「正易」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河圖洛書가 聖人の 主體的 自覺을 통한 「神明之德」¹⁰⁾으로서 天之曆數變化原理라는 확실한 정의를 내리게 된 동시에 河圖의 「十五尊空原理」¹¹⁾洛書의 「四曆變化原理」를 闡明하게 된 것이다. 河圖와 洛書에 함축된 「十五歸空」¹²⁾과 「四曆變化原理」¹³⁾를 可能하게하는 所以然의 根本原理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여기서는 十五尊空과 四曆 그 자체의 개념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살피기로 한다.

대체로 河圖에 있어서도 十五數를 中心本體로 하고 一六, 二七, 三八, 四九의 陰陽生成數가 四方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曆數에 있어 十五尊空原理는 河圖原理에 근거하는 것이요, 洛書에 있어서는 單五數를 중심으로 하고 一과九·二와 八·三과 七·四와六의 四象數가 각각 상응하여 八方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曆數에 있어 四曆變化原理는 洛書原理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曆數原理에 있어 十五歸空原理內에서 四曆이 變化되며 四曆變化內에서 十五度가 歸空되는 것임으로 十五尊空原理와 四曆變化原理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⁴⁾

十五尊空原理와 四曆變化原理는 正易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다.

天地의 數는 日月을 數한 것이니 日月이 不正이면 易이 易이 아니다. 易이 正易 이라야 易이 易이되니 原易이 어찌 항상 閏易만을 쓰겠는가!¹⁵⁾

9) 柳南相, 앞의 논문, 973쪽.

10)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周易 繫辭下 2章)의 「神明之德」을 말함.

11) 金恒; 「正易」上篇, 第七張 참조

12) 金恒, 위책 第十八張 앞 참조

13) 이는 天之曆數變化原理로서 「周易」 繫辭 上篇 九章에서 말한 「四易而成易」의 원리이며, 正易에서는 375度の 原易과 366度 및 365¼度の 두 閏曆과 360度の 正易을 의미하는 것이다.

14) 柳南相, 위의 논문, 974쪽.

15) 「天地之數數日月 日月不正易匪易 易爲正易易爲易 原易何常用閏易」(金恒; 위책 第20張 뒤 正易詩)

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易은 곧 「易者는 曆也라」는 명제에 따라 曆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原曆이 閏曆을 쓰며 閏曆이 다시 正曆으로 變化됨으로써, 原曆이 正曆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正易」에서의 易學的 의미는 다만 現行 閏曆數안에서의 四時氣節의 日常的 變化原理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長久한 宇宙史를 통한 曆數 즉 一年曆數自體의 變化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曆數變化的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正易은 十五歸空과 四曆變化를 말하고 있다.

帝堯의 曆은 三百六十六日이고, 帝舜의 曆은 三百六十五度四分之一이며, 一夫의 曆은 三百七十五度이니 十五를 尊空하면 바로 우리夫子 孔子님의 曆日數인 三百六十日에 해당된다.¹⁶⁾

이를 분석해 볼 때 375度는 原曆度數로서 正易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闡明한 曆數임으로 이를 「一夫之曆」라고 한 것이요, 360度는 正易度數로서 周易 繫辭의 乾坤策數¹⁷⁾에서 이미 말한 것임으로 「孔子之曆」라 한 것이요, 366閏曆度數는 「書經」堯典篇에서 堯帝가 明言한 것임으로 「帝堯之曆」라 한 것이요, 365¼閏曆度數는 「書經」舜典篇에서 舜帝가 七政을 整齊하고 四時日月의 運行曆數을 재조정하여 당시에 變化된 曆數을 밝히는 「治曆明時」의 政事를 행하였으므로 「帝舜之曆」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四曆變化를 말하는 것으로서 堯曆閏曆에서 舜曆閏曆으로, 舜曆閏曆에서 다시 孔子之曆正易으로 變化함에 당하여 비로소 一夫之曆原曆度數 375度가 闡明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原曆 375度는 그 안에서 尊空되어 本體로 돌아간(歸空된) 15度와 실제로 운행되는 360正易度數을 포함한 원래의 全體曆數으로서, 天之曆數의 變化順序에 있어서는 原曆 375度(실제 운행되는 曆數은 360度 正曆) → 366度閏曆

16) 「帝堯之曆은 三百六十六日이니라 帝舜之曆은 三百六十五度四分之一이니라 一夫之曆은 三百七十五度니 十五를 尊空하면 正夫子之曆 當曆三百六十日이니라」(金恒; 위책 上篇 第六張 뒤-第七張 앞)

17) 「周易」, 繫辭上篇, 第九章(乾之策 二百一十有六 坤之策 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曆之日) 참조

→ 365¼度閏曆 → 360度 正曆(尊空歸體된 15度を 포함하면 375度原曆)에로의 四曆變化를 나타내는 宇宙生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위에서 「易者는 曆也라」는 易學의 기본명제에 따라 순수 天之曆數原理의 입장에서 十五尊空原理와 四曆變化原理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논술했거니와, 이러한 曆數變化原理을 內面化시켜 主體的으로 洞覺한 인물이 바로 「天命」을 자각한 聖人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四曆變化의 曆數生成史 속에 전개되는 聖人の 道統, 즉 聖統도 天之曆數原理에 그 연원을 두게 되는 것은 필연적 진리인 것이다.¹⁸⁾ 그러므로 「正易」은 曆數와 聖統을 완전히 일치시켜 曆數聖統原理를 말함으로써 「天之曆數在汝(聖)躬」의 原理를 논증하였다.

그러면 이 曆數聖統原理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III. 曆數聖統原理

聖統이란 聖人之道의 歷史的 傳承系統을 말한 것이다. 본래 天意, 즉 하나님의 뜻이 말씀(道)이 되어 天命로서 사람에게 稟賦되어 역사 속에 전개됨에 있어, 이 天命을 받아 天意를 主體的으로 洞覺한 사람을 聖人이라고 생각할 때에 聖人の 道統, 즉 聖統은 天意, 즉 하나님의 말씀(뜻)의 역사적 전개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天意는 聖人の 말씀(言)을 통하여 역사 속에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聖統은 天意의 내용의 역사적 顯現인 동시에, 聖人の 말씀은 하나님 말씀(天道)을 말씀한 것이 된다. 따라서 聖人は 말씀이 곧 사람이 된 道成人身의 존재인 동시에 聖統은 곧 天道(하나님 말씀)의 역사적 전개라 할 수 있다. 聖統이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면 일반적인 學統과는 엄연히 구별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¹⁹⁾

이에 유교경전 속에서 이러한 聖統의 뜻을 직접적으로 말한 곳은 그리 많지는 않다. 우선 周易에서는 唐虞이전의 聖人の 道統이 伏羲·神農·黃帝·堯·舜의 순서를 따라 傳承되었음을 말하는 聖統說을 제시하고 있다.²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18) 유남상, 위 논문, 975쪽.

19) 위와 같음.

되는 것은 바로 聖統의 연원을 『周易』의 六爻重卦인 64卦(離, 益, 噬嗑, 乾, 坤), 즉 易道에 두고 있는 점으로서, 이러한 易道, 즉 天道를 내면화시켜 神明之德로 洞覺함으로써 천하에 王道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天道의 內面化인 「神明之德」은 易道の 내용이며 이는 곧 曆數原理의 근거임을 밝히고 있는 바, 『周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적에 聖人이 作易함에 있어서 神明에 그윽히 贊同하여 生蓍하였고 參天兩地하여 倚數하고 陰陽變化에서 관찰하여 立卦하고 剛柔에서 發揮하여 生爻하며 道德에 和順하여 義理에 이르고 窮理하고 盡性하여 天命에 이른다²¹⁾

여기서 말한 「幽贊於神明而生蓍」와 「參天兩地而倚數」를 종래에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說蓍求卦의卜筮法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生蓍」「倚數」의 蓍·數는 곧 河圖洛書原理에 의한 天之曆數變化原理을 지칭한 것이다.²²⁾ 따라서 人道인 性命之理는 天道地德(天地道德)에 근거한 것으로서, 天地人三才의 道를 表象하는 六爻重卦의 原理는 體十用九와 體五用六의 河圖·洛書原理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繫辭에서 말한 「天地之數」와 「大衍之數」도 바로 河圖와 洛書의 原理를 가리킨 것으로서, 變化之道가 성취되고 鬼神之道가 행해

20)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周易』繫辭 下篇, 第二章)을 비롯 「堯曰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厥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曰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周有大賁 善人是富」(『論語』堯曰 二十)처럼 직접 天之曆數를 내용으로하는 聖人之道가 堯·舜·禹·湯·文·武·周公의 聖統을 따라 전승되었음을 말하기도하고, 또 聖統思想을 孟子는 「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若禹皋陶 則見而知之 若湯則聞而知之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若伊尹萊朱 則見而知之 若文王則聞而知之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若太公望散宜生 則見而知之 若孔子則聞而知之 由孔子而來 至於今百有餘歲 去聖人之世 若此其未遠也 近聖人之居 若此其甚 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孟子』, 盡心 下, 38)라고 하는등 참조.

21)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理 窮理盡性 而至於命」(『周易』, 說卦, 第一章)

22) 拙稿(南明鎮); 「第三易卦圖 出現可能性的 論理的 根據」(儒學研究 第三輯,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 1995, 大田,) 참조.

지는 根本原理인 것이다.²³⁾

따라서 至神至明한 日月之政을 나타내는 天之曆數變化原理, 즉 河圖·洛書原理을 內面的으로 自覺한 것이 바로 聖人の 神明之德인 것이며, 이것이 또한 聖人の 道統을 따라 傳授되는 道の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시 堯舜以後의 聖統問題를 고찰해 보면, 앞서서도 언급하였던 論語 堯曰篇에 직접 언급한²⁴⁾ 天之曆數原理에 근원하여 堯·舜·禹·湯·文·武·周公의 聖統이 唐虞三代之 역사를 따라 전개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曆數聖統思想은 공자에까지는 비교적 정통적으로 傳承되었으나 漢代以後로 내려오면서 天之曆數의 뜻을 오해하는 동시에 曆數와 聖統을 분리시키고 聖統과 學統을 혼동함으로써 曆數聖統의 本來的 意義를 망각하였던 것이다.²⁵⁾

그런데 正易에 이르러서야 다시 先秦聖學의 曆數聖統原理를 再闡明하면서 十五尊空原理에 근거한 「十五聖統」과 四曆變化原理에 근원한 「四聖之蓍」를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正易은 그 上篇을 十五一言이라 표시하면서 그 내용을 밝혔다.²⁶⁾ 여기 十五一言이란 曆數에 있어 「十五尊空原理」에 근원하여 十五聖統이 전개되는 동시에, 十五聖人이 한 말씀(一言)을 전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有巢·燧人·伏羲·神農·黃帝·堯·舜 등 366일 閏曆기($9 \times 8 = 72$, 閏曆 6일의 72시간)의 7聖과 禹·湯·箕子·文王·武王·周公·孔子 등 $365\frac{1}{4}$ 일 閏曆期($9 \times 7 = 63$, 閏度の $5\frac{1}{4}$ 의 63시간)의 7聖을 배정하여 합계 14 聖人の 聖統을 말하되 360일 正易 蓍數을 闡明한 孔子에서 일단 종결시키고, 다음에 이에 六十三·七十二·八十一(合 216)의 乾策度數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一夫之蓍」인 原曆度數를 闡明한 乾策聖人을 언급하여 15聖統을 종결지었으니, 이에 有巢 이후 孔子까지의 14聖人은 坤策

23) 『周易』繫辭 上篇 第九章참조.

24) 「堯曰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厥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曰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周有大賁 濟人 是富.」(『論語』堯曰第二十)

25) 柳南相, 앞의 논문. 977쪽.

26) 「嗚呼 盤古化 天皇無爲 地皇載德 人皇作. 有巢既巢 燧人乃燧. 神哉伏羲劃結 聖哉神農耕市. 黃帝甲子星斗 神堯日月甲辰. 帝舜七政玉衡 大禹九疇玄龜. 殷廟可以觀德 箕聖乃聖 周德在茲 二南七月. 麟兮我聖. 乾坤中立 上律下襲 襲于今日. 嗚呼 今日今日 六十三·七十二·八十一 一乎一夫」(金恒; 「正易」第一張 앞)

[(1+2+3+4+6)×9=144] 聖人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十五聖統이 宇宙史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九九는 八十一 一夫之蓍 原曆에서부터 八九는 七十二 帝堯之蓍 閏曆과 七九는 六十三 帝舜之蓍 閏曆을 거쳐서 六九는 五十四 孔子之蓍 正易으로의 四曆變化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 四曆變化原理을 내용으로 하는 한 말씀(一言)을 傳授한 것이라 하여 曆數와 聖統을 완전 일치시키어 「天之曆數在聖躬」의 曆數聖統原理을 再闡明하였던 것이다.²⁷⁾

따라서 이와 같이 四曆變化原理에 근거한 四聖之蓍의 原理과 十五尊空原理에 근거한 十五聖統의 原理은 모두 河圖原理에 根源한 것이니, 洛書의 中數五를 體로 하여 四曆變化作用이 나타남으로서 正易이 완성되고, 河圖의 中數十五가 尊空歸體됨으로서 正易이 완성되는, 이른바 「中位正易」原理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 「執中」의 傳授心法도 역시 天之曆數原理의 차원에서 문제되어야 한다. 그 까닭을 「正易」에서는 中位數에 대하여 말하면서 堯舜의 「厥中」의 道도, 孔子의 時中의 道도, 다같이 河圖·洛書의 四曆原理를 근거한 것으로서, 十五聖統에 의하여 執中의 心法으로 전승되면서 「正易」의 「中位正易」原理²⁸⁾로 귀일됨을 말하였다.²⁹⁾

이로부터 우리는 「書經」을 위시하여 先秦諸經典에 있어서의 聖人傳授에 의한 執中의 心法과 특히 周易에 있어서의 卦爻原理에 의한 大人(聖人)·君子의 中正之道와 性命之理도 단순히 形而上學的 觀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正易에서 제시한 天之曆數原理를 내용으로 하는 「中位正易」原理를 근원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正易思想的 차원에서 본다면 儒教諸經에서 말한 中正·性命·仁義思想등에 관한 해석이 종래 漢·宋儒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해석이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易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卦爻原理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中正·性命·仁義 등 문제의 내용을 좀더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7) 柳南相, 앞의논문, 978쪽.

28) 金恒; 앞의 같은책, 下篇, 二十三張 앞.

29) 「十 十九之中, 九 十七之中, 八 十五之中, 七 十三之中, 六 十一之中, 五 一九之中, 四 一七之中, 三 一五之中, 二 一三之中, 一 一一之中, 中 十十一之空. 堯舜之厥中之中, 孔子時中之中, 一夫所謂包五含六十退一進之位,」(金恒; 앞의 같은 책, 下篇, 第二十五張 앞뒤)

IV. 卦爻의 形成原理와 中正·仁義의 道理

대체로 卦爻原理로써 역리를 表象하고 있는 것이 周易을 중심으로한 중국 先秦 儒學이다. 그런데 易學에 있어 卦爻形成의 根本原理를 고찰해 보면 用九數를 근원으로한 陽爻(一)와 用六數를 근원한 陰爻(--)를 기본요소로 하고, 天地人 三才를 表象하는 三爻單卦의 八卦와, 이 八卦를 相乘交合시킨 六爻重卦의 六十四卦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三爻인 單卦八卦는 각기 用九·用六 陰陽兩爻로 된 乾坤兩卦와 乾卦三爻를 각기 세분한 震·坎·艮 三子卦, 그리고 坤卦 三爻를 각기 세분한 巽·離·兌 三女卦를 합한 것이며, 六爻인 重卦六十四卦는 三爻八卦에 다시 八卦를 相乘交合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三爻單卦에 있어서는 震·坎·艮 三子卦의 뜻이 單乾卦로, 巽·離·兌 三女卦의 뜻이 單坤卦로 각각 집약되며, 六爻重卦에 있어서는 六十四卦의 뜻이 역시 重乾·重坤卦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³⁰⁾

이처럼 卦象은 陰陽兩爻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爻의 陰陽作用은 六爻重卦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卦에 있어서는 六爻重卦를 전제로 한 三爻單卦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卦象成立의 기본이 되는 陰陽 兩爻가 각기 用九·用六數를 근원한 것으로 보아, 卦爻는 河圖·洛書의 體十用九·體五用六原理에 근원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³¹⁾

이와 같이 易의 卦象은 河圖·洛書의 九六陰陽合德作用이 가능한 六爻重卦原理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지만, 六爻重卦는 三爻單卦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으로서, 八卦圖에 있어서는 「正易」에서도 宋代 邵雍의 「伏羲先天八卦說」과 「文王后天八卦說」³²⁾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先後天理論에 있어서는 邵子說을 극복하고 넘어섰던 것이다.³³⁾ 그런데 邵子の 伏羲八卦說도 전적으로 周易說卦傳 三章의 天地乾坤이 定位하며 艮山兌澤이 通氣하며 震雷巽風이 相薄하

30) 「周易」, 繫辭 下篇 九章 및 說卦傳 十章 참조.

31) 유남상, 앞의 논문, 979쪽.

32) 邵雍; 「皇極經世書」, 一.八卦定位圖, 三.觀物內篇之一 참조.

33) 위와 같음.

며 坎水離火가 不相射하여 八卦가 相錯이라고 한것에 근거한 것이다.³⁴⁾ 이는 方位를 말한 것으로서, 邵子는 이를 伏羲氏가 始劃한 先天八卦圖라 규정하고, 一乾天·二兌澤·三離火·四震雷·五巽風·六坎水·七艮山·八坤地라 하여 數와 卦를 結付시켰다.³⁵⁾ 그리고 그 方位에 있어서는 乾南 坤北 離東 坎西 四正卦와 兌東南 艮西北 巽西南 震東北 四維卦로 確定하였으며,³⁶⁾ 그후 朱子도 邵子說을 그대로 계승하였다.³⁷⁾ 그러므로 邵子의 伏羲先天八卦方位說은 八數와 결부되어 뒤의 圖象(圖3)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文王八卦說에 관하여도 周易說卦 第五章에서는 帝가 震에서 나와 巽에서 齊하고 離에서 서로 보고 坤에서 役事를 이루고 兌에서 말을 기뻐하고 乾에서 싸우고 坎에서 수고롭고 艮에서 成言한다고 하였다.³⁸⁾ 계속하여 八卦의 方位를 말하되 震東·巽東南·離南·乾西南·兌西·乾西北·坎北·艮東北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⁹⁾ 이에 관하여 邵子는 文王이 다시 劃定한 八卦圖라 규정하고, 이른바 文王后天八卦說을 주장하였으며, 그후 朱子도 邵子說을 그대로 계승하였다.⁴⁰⁾

그런데 여기서 文王八卦圖와 數의 관계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邵子의 이른바 文王八卦에 數를 결부시킨 것은 이미 漢代易學에서 鄭玄에 의해 이룩된 것이니, 漢代의 先秦明堂制度論에 근원한 太一下行九宮說⁴¹⁾을 說卦 五章에 말한 八卦方位와 결부시킴으로써, 一坎·二坤·三震·四巽·五中央·六乾·七兌·八艮·九離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邵子의 소위 文王後天八卦圖는 九數와 결부되어 뒤의 圖象(圖4)으로 전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說卦에는 第五章에 이어 六章에 다시 八卦圖를 설명하면서 神이라는 것

34)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周易』說卦傳 三章)

35) 앞 註32와 같은 책, 二六十四卦數圖 참조.

36) 앞 註32와 같음.

37) 「周易」, 說卦 第三章, 朱子註 참조.

38)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周易』, 說卦傳, 第五章)

39) 위 같은곳, 다음문장 참조.

40) 앞의 註37과 같은 곳, 第五章 朱子註 참조.

41) 「易緯乾鑿度」下卷, 鄭玄의 註 참조.

은 萬物의 奧妙合德相을 말하는 것이니, (中略)그러므로 水火가 相逮하며 雷風이 不相悖하며 山澤이 通氣된 뒤에야 能變化할 수있으며, 이미 萬物을 完成하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⁴²⁾ 이에 관하여 邵子와 朱子是 다같이 伏羲卦·文王卦와는 다른 별개의 八卦圖로는 보지 못하고, 伏羲卦位와 文王卦位를 다시 설명한 듯 한데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⁴³⁾

그런데 「正易」은 이 說卦 六章全文에 관하여 宋代易學의 견해와는 다른 차원에서 孔子가 伏羲八卦·文王八卦에 이어 第三의 卦圖(뒤 圖5 참조) 출현을 말씀한 것으로 보고, 이에 의거된 聖學 본래의 意義를 드러내면서 易學의 根本原理을 闡明하였던 것이다.⁴⁴⁾

여기 「神也者」의 神은 十乾·五坤이 완전히 合德一致된 것이라 하겠고, 「水火相逮」는 四坎·九離가 相遇同度된 것이요, 「雷風不相悖」는 六震·一巽이 正位用政된 것이며, 「山澤通氣」는 八艮·三兌가 合德成道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乾坤과 六子女卦인 三爻八卦가 완전히 成象하여 각각 正位된 뒤에 重乾重坤의 뜻을 가진 二天·七地の 六爻重卦象이 大成되면서 능히 變化하여야 만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니, 여기서 비로소 十·五乾坤을 體로 하고 九六陰陽兩爻을 用으로 하여 六位가 時成되고 天下가 化成되는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正易」에서는

易은 三이니 乾坤이요 卦는 八이니 否와 泰·損과 益·咸과 恒·既濟와 未濟이다⁴⁶⁾

42)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動萬物者莫疾乎雷 撓萬物者莫疾乎風 燥萬物者莫熯乎火 說萬物者莫說乎澤 潤萬物者莫潤乎水 終萬物始萬物者莫盛乎艮 故水火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然後能變化 既成萬物也」(「周易」說卦傳, 第六章)

43) 앞註와 같은 곳의 朱子註 참조.

44) 易學史에서 伏羲·文王의 두 卦圖의 出現에 이은 第三의 易卦圖(正易卦圖) 出現 可能性에 대하여 周易의 表現안에서 그 論理的 根據를 밝힌 論文(앞의 주 22 참조)을 筆者가 發表한 바, 기본 입장은 正易思想의 이해를 바탕에 두고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본 논문의 이 부분은 그것을 토대로 하면서 또한 그 기본 입장은 柳南相교수의 論調(앞의 註에서 수차 인용 제시한 「金恒의 正易思想」)를 全적으로 수용하였음.

45) 「周易」說卦 第二章에 「易六劃而成卦…易六位而成章」라고한 것을 위시해서 여러 곳에서 六爻重卦의 完成論理를 밝히고 있음.

고 하여 『周易』의 六爻重卦로서의 易道가 完成됨을 말하였던 것이다.

위에서는 주로 周易說卦를 중심으로 하여 伏羲·文王·正易의 三易八卦圖를 각각 언급하였거니와 이를 다시 종합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八卦에 있어 各卦의 三個爻가 生·長·成의 의미와 天地人三才의 뜻을 表象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伏羲八卦는 三才의 生卦圖라면, 文王八卦는 三才의 長卦圖라 하겠으며, 正易八卦는 天地萬物의 成卦圖인 것이다.⁴⁷⁾ 그러므로 八卦圖의 구성에 있어서도 南北 즉 上下를 축으로 하여 생각할 때에 伏羲卦圖는 乾南(上) 坤北(下)으로서 天地가 生形하여 上下로 正位된 象이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陰陽이 분리되어 上下가 不交된 天地否(≡上≡下)卦의 理致가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고, 文王卦圖는 離南 坎北으로서 萬物生長의 뜻을 表象하고 있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陰陽이 分離生長하는 火水未濟(≡上≡下)卦의 理致가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正易卦圖에 이르러서는 乾南 坤北으로서 天地萬物이 成象되어 陰陽이 合德하고 上下가 交泰된 地天泰(≡上≡下)卦의 理致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日月이 合德同度되고 聖人君子가 合德成道되어 천하가 化成되는 原理를 表象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正易』八卦에서 비로소 三才之道 즉 易道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이에 다시 南北 上下를 축으로 하여 數를 중심으로 三易卦圖를 고찰할 때에 伏羲卦는 一乾에서 시작하여 八坤로 끝나는 一數를 근원한 八數八卦라면, 文王卦는 一坎에서 시작하여 九離로 끝나는 五數中心의 九宮八卦인 것이며, 正易八卦는 三爻單卦인 一巽六震 四坎九離 八艮三兌의 六子女卦原理를 統一集約한 十乾五坤 즉 十五가 合德一致되면서 「尊空歸體」됨으로써, 二天七地인 重卦乾坤原理로 變化되어 비로소 六爻의 用九用六作用이 완전 발휘되는 十數八卦가 現成된 것이다.⁴⁹⁾ 여기서 伏羲·文王·正易八卦는 각각 八九十의 순서로 生成되면서 一二三의 순서에 따라 三才之道, 즉 易道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伏羲卦는 一太極을 근원으로 萬物生形의 原理를, 文王卦는 五皇極을 중심으로 萬物生長의 原理를, 正易卦는

46) 「易三乾坤 卦八 否泰損益咸恒既濟未濟」(『正易』下篇, 第二十七張 앞.)

47) 柳南相, 앞의 논문, 983쪽.

48) 위와 같음.

49) 위와 같음.

十无極의 成道와 天地萬物の 完成原理를 각각 表象한 것이라 하겠다.⁵⁰⁾

이와 같은 一太極·五皇極·十无極의 三極之道는 다름 아닌 三才之道인 것이니, 原理에서 보면 三極이요, 現象에서 보면 三才인 것이다. 따라서 三易八卦와 六十四卦는 三才와 陰陽을 卦爻의 象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三極之道는 三才와 陰陽을 河圖·洛書의 數로 표현한 것이 된다.⁵¹⁾ 여기서 三易八卦는 「兼三才而兩之」⁵²⁾에 있어 「兼三才」에 중점을 둔 三才生成原理를 表象한 것이라면, 河圖·洛書는 「兼三才而兩之」에 있어 「兩之」에 중점을 둔 用九用六陰陽合德原理를 表象한 것이라 하겠다.⁵³⁾

따라서 三才의 시간적 生成에 있어 伏羲·文王卦는 陰陽이 분리되어 生長하는 原理를 表象한 것이며, 正易卦는 分離生長되던 陰陽이 다시 合德 成道되는 原理를 表象한 것이므로, 宋代易學이 말한 伏羲先天과 文王後天의 이론은 다시 伏羲·文王先天과 正易後天의 理論으로 變易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卦에 있어서는 用六數인 六爻로, 爻에 있어서는 用九用六數인 兩爻만 표현하였는가? 무릇 河洛陰陽數가 合德作用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河圖는 體十用九하고, 洛書는 體五用六하는 것이니, 九八七六數를 漢代以後學者들은 一般的으로 設書에 의해 얻은 數로서 九·六을 老陽·老陰數, 七·八을 少陽·少陰數라고 하지만, 周易과 正易에서는 대체로 用九 用八 用七 用六數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正易은 先秦易學에서도 曆數推衍方法으로 널리 적용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九九法則에 의하여 用九는 原曆數, 用八·用七은 兩閏曆數, 用六은 正曆數等 四曆生成法則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原曆과 正曆은 사실상 하나의 曆으로서, 原曆數 375度에서 15度を 歸體시키고 보면 실제적으로 쓰는 曆은 正曆數 360度인 것이다. 따라서 周易 64卦 形成의 본질이 된 陰陽 兩爻을 오직 用九 用六數로만 표현한 것은 九六作用에 의하여 河洛陰陽이 완전히 合德되어 原曆과 正曆이 一致된 이른바 后天世界의 天地道德原理를 表象한 것이라 하겠다.⁵⁴⁾

50) 위와 같음.

51) 위와 같음.

52) 「周易」說卦, 第二章 참조.

53) 위 같은 논문, 984 쪽

54) 柳南相, 「正易思想의 根本問題」(충남대학교 인문과학 논문집, 제 XII권 제2호, 1980, 충남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의미의 用九用六原理를 바탕으로 「兼三才而兩之」 함으로써, 六爻重卦가 成立되었는 바, 여기서 우리는 卦自體가 그대로 九八七六에 있어 用六度數에 의한 正曆世界의 天地道德原理를 表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周易 64卦의 보편적인 진리는 九八七六度數를 내용으로 하는 一二三四의 四曆變化之道에 근거한 天地道德原理의 象徵的 표현으로서 元亨利貞思想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임으로, 이것이 64卦의 原理를 총집약한 乾卦와 卦辭가 된 것이며, 文言에서는 다시 君子的 道德原理로서 「仁義禮智」 四德이 된 것이다.

그런데 孔子는 十翼에서 易의 思想인 「元亨利貞」을 「大亨以正」⁵⁵⁾이라고 해석하고, 또 그 「大亨以正」에 대해서 한곳에서는 「天之道也」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天之命也」라고 하였으니, 이 天道로서의 正은 四曆生成變化에 의한 正曆에로의 曆數變化을 뜻한 것이며, 天命으로서의 正은 장차 君子가 實踐해야할 四德으로서의 性命之理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周易 전체의 내용은 大亨以正 四字의 의미로 집약되면서 天道變化의 正易原理를 根源하여 인간의 性命之理에 의거한 正命思想을 말한데 지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正」一字의 해석으로 요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周易은 兼三才而兩之함으로써, 六爻重卦가 成立되면서 공간적 概念에 의한 內外卦 또는 上下卦와 시간적 관념에 의한 先後天卦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天·地·人 三才中에서 사람이 항상 天地萬物의 中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重卦에 있어서는 각각 內外 上下 先後天卦의 中正之位에 해당되는 二爻·五爻가 본래의 사람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道도 天地의 道와 같이 이미 兩之된 것임으로 聖人즉 大人과 賢人 즉 君子的 道로 兩分된다. 그런데 大人은 하늘적인 존재라면 君子는 땅적인 존재로서 후자는 전자의 아내와 같은 위치라 하겠다. 따라서 대체로 大人은 上(外)卦의 中位인 五爻에, 君子는 下(內)卦의 中位인 二爻에 각기 正位하는 것이 易學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道德原理로서의 中正之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中正之道란 聖人之言(道)과 君子之行(道)이 완전히 內外上下가 合德一致된 경지를 뜻한 것으로서, 이는 正易에 이른바 中位正易된 后天世界의 道德

인문과학연구소) 243 쪽.

55) 「周易」, 臨卦, 无妄卦, 革卦의 象辭 참조.

現象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儒敎思想에 있어서의 聖人 즉 大人과 賢人 즉 君子의 概念이 구별되는 동시에, 그 歷史的 使命과 위치가 다를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乾卦文言에는 二爻와 五爻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여 풀이했던 것이다.⁵⁶⁾

즉 二爻의 學聚는 智, 問辨은 義, 寬居는 禮, 仁行은 仁으로서, 君子의 四德을 뜻하는 것이니, 二爻君子의 中正之道는 五爻大人의 말씀(道)을 학문하여 智性を 啓發하고 義理를 분별하며, 또 이 말씀을 따라 禮로써 생활하고 人德을 體得함으로써 聖人の 道를 天下에 구현하는 사명을 뜻한 것이요, 五爻大人의 中正之道는 天地·日月·四時·鬼神之道를 神明之德으로서 깨달아, 天之曆數變化에 의한 中位正易原理를 근거로 天道의 思想과 君子의 四德을 말씀으로 밝히는 天命을 뜻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大人은 天道變化에 앞서 大亨以正의 正易變化之道와 君子四德原理인 后天의 도리를 말씀으로 밝히는 존재로서, 뒤 따라 오는 天道가 절대로 이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君子는 聖인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天道變化의 뒤를 따라 天時에 순응하여 四德을 實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聖人の 말씀은 天道도 어기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나 鬼神이야 물론 어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聖인이 말씀한 中正之道와 君子가 實踐할 性命之理는 본질적으로 하나요 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聖人の 말씀을 기록한 經書의 내용은 后天의 진리로서의 意義를 가지게 되면서, 儒敎의 宗教的 本來性이 발견된다고 하겠다.⁵⁷⁾ 따라서 여기에 다시 易의 先後天變化原理가 問題되는 것이다.

V. 先後天變化原理 : 맺음말을 곁하여.

앞에서 「正易」이 제시한 易學의 三大命題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사상 내용을

56) 「(二爻) 君子學以聚之 問以辨之 寬以居之 仁以行之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 君德也……

(五爻)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而況於鬼神乎」(「周易」乾卦, 文言)

57) 柳南相, 위 논문, 245쪽.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논술한 내용을 要約적으로 정리하면서 「正易」이 밝힌 先後天變化原理의 의미를 풀이하고, 그 原理가 객관적인 天地自然의 對象世界으로 變革되는 데에 被動的으로 구원받으려는 타율적 종교성에 맹목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人間主體의 性命을 자각하면서 인격적 인간으로 거듭남을 통해 心性內的 變革이 선행되어 마침내 天人合德이 이루어져야할 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正易」의 先後天變化原理의 핵심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에 代하고자 한다.

대체로 「正易」은 「易은 曆이다」라는 대명제에 따라 河圖·洛書를 天之曆數變化原理로 규정함으로써 十五尊空原理에 의하여 四曆이 生成變化되는 것이요, 이 十五尊空·四曆變化原理를 근거로 하여 十五聖統이 전개되고 四聖之菁가 闡明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聖人은 天之曆數原理의 人間 主體的 自覺을 통하여 天命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正易」은 易의 卦爻原理를 聖人이 天道인 十五尊空原理를 중심본체로 하고 四曆變化原를 四象(元亨利貞)작용으로 하는 曆數原理를 인간주체적으로 자각체득함으로써, 人道인 中正之道와 性命之理를 내용으로 하는 君子的 四德(仁義禮智) 實踐原理로 表象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正易」은 周易의 六十四卦原理를 河圖洛書의 體十用九·體五用六原理에 근원한 陰·陽兩爻를 기본으로 하고 「兼三才而兩之」의 원칙에 의거하여 六爻重卦가 형성되면서 聖人 君子的 中正之道와 性命之理를 卦爻의 象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正易」은 「周易」이 제시한 세계가 다른 아닌 先天聖人이 天道の 「中位正易」原理를 主體的으로 自覺함으로써 後天에 君子가 실천할 人道로서의 性命之理를 天道變化에 앞서 말씀한 儒敎의 종교적 내지 미래적 이상 세계로 규정하였다. 이에 正易은 陰·陽이 분리하여 生長하는 堯菁閏曆(用八)과 舜菁閏曆(用七)의 세계를 先天이라 하고, 다시 이 閏曆世界가 變化하면서 體十用九·體五用六作用에 의하여 陰陽이 合德됨으로써 一夫之菁原理(用九)를 體로 하고 孔子之菁正易(用六)이 운용되는 세계를 後天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正易은 다시 孔子에서 大成된 「易經」을 위시하여 先秦儒敎經典에 보편적으로 말한 聖學思想으로서의 君子之道는 다른 아닌 「하늘보다 먼저하되 하늘이 어기지 아니하(先天而天弗違)」

는 聖人の 진리의 말씀과 「天道の 변화에 뒤따름에는 天時를 받드(後天而奉天時)」
는 君子の 道가 완전 일치하여 명실공히 구현된 後天的 진리로서의 意義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비로소 先後天의 개념이 易學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동시에 儒敎 본래의 宗教的 세계를 再闡明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周易.	正易.
論語.	孟子
大學.	中庸.
書經.	春秋.
禮記.	皇極經世書.
易緯乾鑿度.	

柳南相(1984). 金桓의 正易思想. 韓國近代宗教思想史. 이리: 원광대학교출판국.

南明鎭(1995). 第三易掛圖 出現可能性의 論理的 根據. - 儒學研究, 제3집. 충남대
학교 유학연구소.

柳南相(1980). 正易思想의 根本問題. 인문과학, 제XⅡ권 제2호. 충남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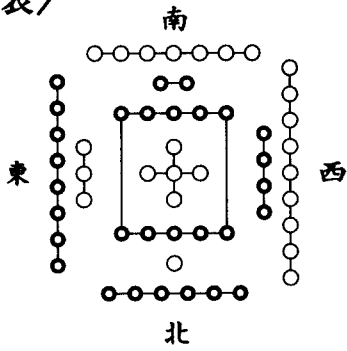


圖1. 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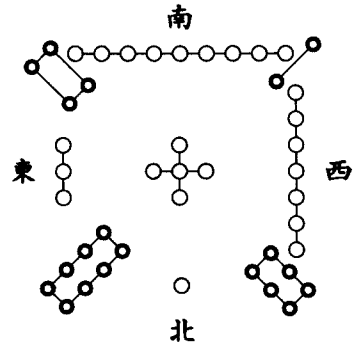


圖2. 洛書



圖3. 伏羲掛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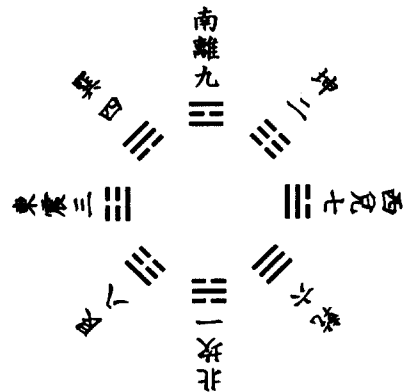


圖4. 文王掛圖



圖5. 正易掛圖